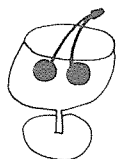


## 유방암 이야기



김 상 희

서울중앙병원 내과교수

### 1. 유방암의 호발조건

□ 유방암은 여성의 가장 활발한 활동기인 40대에서 호발한다.

유방에 발생하는 암은 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이며, 여성의 가장 활발한 활동기인 40대에서 호발하는 것이다.

이 유방암의 발생은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여성암의 약 27%가 유방암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전 여성암의 약 12%가 유방암에 해당된다.

유방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나라와 사회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체로 후진국보다 선진국에서 이병률이 높고 같은 나라에서도 경제적 수입이 높고 사회적 조건이 좋은 계층에서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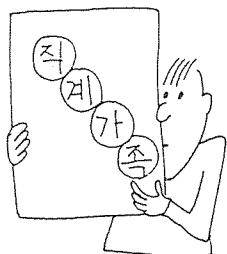
### 2. 유방암의 원인

□ 아직 확실치는 않으나 음식물의 지방섭취, 비만증과의 관계가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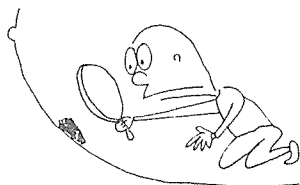
유방암의 원인은 아직 확실치 않으나 음식물의 지방섭취, 비만증과 관계가 있으리라고 추측하는 학자가 있다.

유방암의 소인으로써는 체질적 소인이 있으며, 유암수술을 받은 사람은 반대편 유방의 유방암 발생률이 높고 직계가족에 유방암이 있으면, 또한 발생률이 증가한다.

아기를 낳지 않은 부인, 30세까지 임신하지 못한 부인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약간 높고, 40세 이전에 난소적출 수술을 받은 부인은 보통부인보다 유암의 발생률이 감소되며, 이러한 사실들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이라는 호르몬이 유방암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



직계가족에 유방암이 있으면 발생률이 증가한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5년이상 생존율이 80% 이상이다.

주는 것이다. 또한 첫 임신이 빠르면 유방암 발생의 위험도가 줄어든다.

유암은 조기진단이 가능하고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면 경과가 좋은 암 가운데 하나이다. 조기진단이 가능한 이유는 유방이 가슴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부에서의 촉진이나 자가진찰로써 조기에 혹은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에 진단해서 1기에 수술하면 5년이상 생존율이 80% 이상이고, 10년 생존율은 70% 이상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수술 후 화학요법 혹은 방사선요법을 겸하면 보다 더 좋은 완치율을 보인다.

### 3. 유방암의 진단

□ 유방암의 가장 흔한 첫 소견은 유방에서 촉진되는 혹이다.

유방에서 혹이 만져진다고 모두가 다 암은 아니며 대체로 유방에서 만져지는 전체 혹 가운데 1/4이 암이라고 생각하면 무방할 것이다.

유방암의 가장 흔한 첫 소견은 촉진되는 혹이다. 대체로 무통이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 아픈 혹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다.

이외에도 유방의 증대, 발적, 궤양, 광범위한 아픔, 팔이 붓는 것, 때로는 겨드랑에 혹이 만져져서 발견되는 수도 있다. 아주 드물게 원발암이 유방에서 발견되기도 전에 다른 장기, 즉 골격, 폐 등에 전이되는 수가 있고, 반대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기간 유방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유방을 해부학적으로 4등분해서 상외부, 상내부, 하외부, 하내부로 구별했을 때 상외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이 상내

난소  
적출



40세 이전에  
난소적출 수술을  
받았다면 유암의 발생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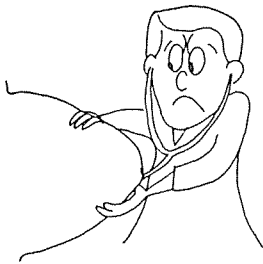


유방암은 대체로 무통이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부, 하외부, 하내부 순이다.

유두 또는 유두중심부에서도 암이 발생하며, 파젯트씨병이라는 것은 유두륜 또는 유두의 염증성 암성병변이며, 유방암과 관계되는 것으로 중년부인에서 호발한다.

진찰소견으로 유방암을 진단하는데, 약 70%가 정확하다. 유방내 딱딱한 혹 또는 덩어리가 있으면 암을 일단 의심해야 한다.



유암의 증상은 유방의 종대, 발적, 궤양, 통증, 겨드랑이의 혹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암이 계속 진행되면 피부 보조개나 피부가  
당겨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소견을 발견하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암이 계속 성장하면 유방내에 섬유소와 유착하여 피부에 보조개, 또는 당겨 들어가는 것 등 암 특유의 소견을 수반하게 되고, 피부임파관이 침범되면 염증증상을 일으켜 그 국소부위가 빨갱게 붓는 수도 있다. 그리고 감귤의 껍질처럼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겨드랑이에서 임파선의 종대를 촉진할 수 있다.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소견이 있을 때 의사의 진찰을 받고 유방의 특수 X-선 검사 또는 초음파검사, 조직생검 등의 검사를 시행해서 암의 진단이 확실하게 되면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㉞